

이름 _____ 이 재 희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호주 Victor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1.07.25~2012.06.21
귀국여부	아니오(2012.07.15)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 Accommodation Management 우리나라에서는 호텔경영론과 유사한 과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4년제 관광경영학과 수업들은 이론 위주로 배웁니다. 반면에, 호주의 학교들은 실무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특히 이 과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중 가상의 호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우는데 실제 호텔의 실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p> <p>· Food&Beverage Management I 한국에서는 식음료경영론 수업과 유사한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 배우는 반면에 이 학교에서는 1학년 과목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때에 비해 기초적으로 가르쳐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고, 역시 실무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호주의 전반적인 식음료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좋았습니다.</p> <p>· Professional Wine&Beverage Studies 와인을 비롯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마실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와인 수업이 학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맥주, 위스키, 차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매주마다 학업계획서에 제시된 수업 주제를 교수님이 1시간 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수업하고, 2시간은 학생들이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요약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식 수업입니다. 와인, 맥주, 위스키를 테이스팅도 하고 특히 요즘 호주의 와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 Communication for Academic Purposes A 어학연수는 영어 실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수업은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들으며, 혹시나 대학교 수업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들으면 참 좋은 수업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교양 과목입니다.</p> <p>· Introduction to Hospitality 호텔, 레스토랑, 관광 등 모든 환대 산업의 총괄적인 개론을 배우는 수업으로 1학년생이 듣는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이 주 목적이라기 보다는, 먼저 학생이 이 분야에서의 적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주 된 수업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격유형검사 및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로 계획을 세우는 즉, 이 분야에서 일하</p>

	<p>는 데 있어 초석을 다지는 수업입니다. 자신이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면 들어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수업입니다.</p> <p>· Tourism Enterprise Management</p> <p>목적지에 따른 관광경영 전략이 아닌 관광지 자체에 대한 관광경영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경영 전략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호주에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알맞은 경영 전략에 대해 연구해 보는 데, 2학년 수업으로 잡혀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학년 수업 내용으로 조금은 수준이 있는 수업입니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호주 Victoria University는 따로 지출한 비용이 없었습니다.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0) : Victoria Place 외부 아파트(0)
숙소비용	<p>· 기숙사 비용 : 한 학기 대략 \$6000. \$240/주,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등 모든 공과금 불포함. 기숙사 신청서비(\$50), 기숙사 활동비(약 \$90불), 공동 시설 관리비(약 \$150) 따로 받음. 예치금 \$800.</p> <p>· 외부 아파트 비용 : 웨어라고 하여 자취와 비슷한 개념. 위치에 따라 금액도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살던 아파트는 \$170/주. 모든 공과금 포함.</p>
숙소평가	<p>기숙사는 원룸형식(화장실 및 부엌까지 방안에 모두 구비)의 기숙사였기 때문에 다른 룸메이트와의 문제는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을 강조하기엔 너무 금액이 비싸며, 퇴사할 때 맡겨두었던 예치금을 다 못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p> <p>웨어는 집주인이 남는 방을 월세를 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자취의 형태로 특히 멜번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 웨어를 찾는 것은 크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월세에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 기숙사 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p>
식사	직접 요리 및 외식
식사비용	\$60/주(장보는 가격 및 외식비)
식사평가	
보험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호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OSHC 보험, \$420/년)
한달 생활비(대략)	\$100/주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도착지에 도착을 해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는 일반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정보는 확 와 닿지 않는 혹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환학생 본인이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습득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겠지만, 학교 측에서 해당 학교로 다녀왔던 학생들과 그 학교로 파견될 학생들을 1:1 멘토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란 신분이 혼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특이한 신분이다 보니 그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로 유학을 간 한국인일지라도 교환학생으로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살아본 결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외국인 교수님들의 도움은 서류 문제에 있어선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교수님들도 교환학생들이 파견될 지역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만큼 그 지역의 생활정보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공부한 교환학생들이 알려주는 생활정보는 책이든, 인터넷이든 그 어떠한 정보보다 더더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이니 그러한 멘토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각 교환학교마다 첫 학기 개강이 다른데, 그 교환학교의 첫 학기에 맞춰서 파견하는 것은 어렵나요? 미국은 8, 9월이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2월말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1년 학기가 끝마칩니다. 학기마다 연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있는 만큼 교환학교의 환경을 배려해서 파견 시기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출발하기 전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작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기준으로 파견을 합니다. 호주 Victoria University 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학기가 시작되고 끝마치기 때문에 제가 파견되던 시기는 2 학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2011 년 7 월 말에 2 학기 수업이 시작했는데,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이다 보니 겨울 옷을 주로 싸가지고 갔습니다.

Victoria University 는 Victoria 주의 주도인 멜번(Melbourn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멜번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호주 전체의 인구수는 약 2 천 5 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요즘은 이민자 및 영주권자의 수를 줄이는 추세이지만, 전체 인구 중에는 다수의 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인종보다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더 많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를 떠올리면 미국부터 생각이 나지만, 호주에 와서는 그 생각이 점차 변할 만큼 다양한 인종이 이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2 주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발급되어서 비행기 표를 간신히 구입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될 시기는 다른 유학생들의 개강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적어도 2~3 달 전에는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저는 편도로 구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왕복으로 사고 돌아오는 날짜를 미정(오픈)으로 해 놓는데 그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오픈으로 해 놓으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편도로 두 번 구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자는 오픈으로 해 두었기 때문에 본인이

결과보고서

돌아오고 싶은 날짜에 지정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만 교환학생이 돌아올 시기는 똑같이 모든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시기와 맞닿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기를 마치고 교환학생들은 주로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을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예약해서 오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으로 하면 여행을 마치고 처음 도착했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출발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짜기 어렵다면 편도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나라인 만큼 검역체계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음식물 검역이 가장 심한데, 한국 음식을 가져간 학생이라면 출입국 신고서에 음식 가져간다고 체크를 하고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혹시나 걸리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점차 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라면, 카레, 젓갈 등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런지 대부분 통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하는 시간은 5 분 내외 이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탑승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행편이 아닌 환승을 해야 한다면 꼭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매를 해야합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1 시간 남기고 검역 검사를 해서 자칫 잘 못하면 환승편 비행기를 놓칠 뻔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의(衣), 식(食), 주(住)가 가장 기본이고, 세상 어딜 가든 이 세 가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옷은 한국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식당은 많으니 입만 열고 돈만 있으면 먹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은 마음의 안정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살 곳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친척분이 파견될 지역에서 사신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호주로 교환학생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숙사, 쉐어 그리고 홈스테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먼저 기숙사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학교와 가장 가깝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의 대부분도 기숙사에 머무르기 때문에 글로벌 인맥을 쌓고 싶다면 기숙사에 사는 것은 꽤나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점과 글로벌 인맥의 형성, 이 두 가지의 가치가 과연 엄청난 금액의 기숙사비보다 크거나 같을 지는 미지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는 다르게 가격 대비 기숙사 시설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좋은 원룸 같은 기숙사도 있지만,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이 웬만한 우리나라 1 년치 등록금과 맞먹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쉐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는 자취형태입니다. 워낙 호주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는 방을 제외한 남는 방을 세를 놓고 자신이 사용하는 방을 제외한 모든 집안 시설은 같이 사는 쉐어생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쉐어를 구하는 광고에 따라 방에 사는 사람의 수도 천차만별인데, 대부분 2 인 1 실을 구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한국인과 같이 살고 싶으면 다음 카페나 호주정보 제공사이트에서, 영어가 늘지 않을 것 같아 외국인과 쉐어를 하고 싶다면 외국 사이트에 쉐어를 구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쉐어의 좋은 점은 역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숙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원룸식 기숙사는 인터넷비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비를 제외하고 공과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반면에, 모든 쉐어는 방값에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쉐어와 기숙사비는 한 달에 최고 400 불 넘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조금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기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내 중심가 일수록 집값이 비싸고, 허위광고를 올릴 때도 있고, 방값으로 돈을 벌려는 악덕 주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들어가기 전 집 분위기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등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와 일치하는지 직접 살펴 봐야합니다. 방에 서너명씩 사는것도 모자라서 거실에서 지내게 하는 쉐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쉐어와 살려고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홈스테이의 장점은 외국인과 생활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고 싶어도 쓸 기회 조차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은 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만큼

결과보고서

비싸고, 차 없으면 너무 먼 외지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에 문제를 보입니다. 학교 캠퍼스가 멜번 시내를 반경으로 20km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집들은 주로 20km 보다 더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약덕 홈스테이 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셔야합니다. 한 예로, 제 친구는 홈스테이 살 때 홈스테이 주인이 물을 아끼라고 샤워 시간을 하루에 단 5 분만 주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이 가끔 서러울 때도 있고 피치 못할 일도 생기는데 이런 일로 신경을 써야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사는 곳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첫 학기만 기숙사에서 살고 나머지 기간은 웨어해서 살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한국에서 가는 교환학생 수는 적지만,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교환학생은 한 학기에 약 100 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 및 교환학생들끼리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교환학교에서는 많은 오리엔테이션과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Victoria University 는 개강 일주일 전부터 이러한 행사를 열기 때문에, 멜번에 자리 잡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려면 늦어도 개강 2 주일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종류로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 환영 인사, 교환학생들끼리 친목모임, 단과대별 환영 인사 행사 등이 있습니다. 또 교환학생끼리만 가는 여행을 학교 측에서 준비하는데 2 박 3 일 동안 멜번 유명 관광지에 놀러갑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증 만드는 법, 수강신청하는 법, 도서관 이용 안내 등 학생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혜택들을 각종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해줍니다. 외국 친구들과 우정과 친목도 쌓고 싶다면 여행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오리엔테이션처럼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여행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하시고 결정해야합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니만큼, 학교측에서는 교환학생들만 이용가능한 사이트나 페이스북 그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지사항을 올리는데 수시로 확인해야합니다.

호주에서 Full-Time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려면 일반 학생들은 4 과목을 들어야합니다.(5 과목까지 수강 가능함) 다행히도 교환학생들은 3 과목에서 5 과목까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기 전 특히 3 학년 학생들은 필히 졸업사정을 하시고 호주에서 수강하려는 과목이 학점인정이 되는 확인하시고 수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비해 과목수가 적어서 좋아 보이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강신청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물론 정정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개강 첫 주에는 한국처럼 매 수업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첫 주에 수업을 일찍 끝마치는 반면에, 호주는 첫 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동반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느 때처럼 첫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학업 계획서를 나눠주시는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업계획서를 절대 멀리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는 달리 호주 교수님들은 학업 계획서에 수업의 학습목표는 물론이고 매주 강의 계획과 과제의 주제 그리고 과제 제출 기한까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제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은 학업계획서에 대부분 나와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복사물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교수님들처럼 갑자기 레포트를 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레포트의 주제와 제출기한이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 참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과목 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중간고사를 안 보는 대신 한국에 비해 과제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목당 4 개에서 6 개 정도의 과제가 주어지며 대부분 과제의 형식이 레포트 제출입니다. 모든 과제는 늦어도 제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포트 과제의 양은 1000 단어(A4 용지 3~4)인데, 호주 교수님들은 참조 문헌을 참 좋아하십니다.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00 단어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4 개 이상의 참조 문헌을 참고하셔서 쓰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고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따라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야 무난히 끝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일반 학생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공부에서만 배울 수 없는 인생공부가 바로 여행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은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피난처이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유쾌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널리 알려진 대로 관광대국입니다. 멜번에만 해도 약 20가지가 넘는 관광지가 있고 비행기만 타고 가면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를 비롯해 더 남쪽에는 뉴질랜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모두 다 가 보는 것이 좋겠지만, 멜번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 꼭 한 곳이라도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경험은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학기 중에는 짬을 내서 멜번에 있는 관광지를 다니고, 학기 중에 일주일 동안 방학 기간이 있는데 과제가 몰리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 다른 도시로 여행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기간 그리고 학기를 마친 후……〉

호주의 한 학기는 12주 수업과 학기 중 1주 방학, 12주 째 수업을 마친 후 시험 공부하라고 1주일을 또 줍니다. 그리고 3주동안 기말고사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처럼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수업하는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큰 강당(약 2~300명 규모) 두 곳을 빌려서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관리본부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모든 수업을 3주간의 기말고사 기간의 시험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시간표는 개강 6주째 월요일에 학내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험 날짜에 따라 한 학기가 최소 15주가 될 수 있고, 운이 나쁘면 17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몰아서 시험 보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은 기나긴 시험기간이 참으로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점수에 여유가 있는 과목이라면 여행을 다니거나 방학 때까지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기간이 같은 반면에 외국은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습니다. 호주의 2학기는 11월에 끝나는데 이 때가 초여름입니다. 내년 1학기 개강은 2월이니깐 약 3달간의 방학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면 다음 학기 생활이 여유로워 질 것입니다.(학생비자는 참고로 20시간/주 일할 수 있고 시급은 약 \$14불 내외면 많이 받는 편입니다.) 반면, 겨울방학은 한 달이지만 아쉽게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계획〉

4년 전, 아너스 프로그램 발대식에서 제가 신입생 대표로 총장님 및 여러 학과 교수님들과 선·후배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라스 베가스의 호텔 지배인이고, 그 꿈을 움직이는 모토가 바로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경영인’이 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에 있어 아너스 프로그램과 교환학생이 그 밑거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교환학생도 끝에 다다랐고, 별 탈 없이 마치는 것을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영화고 드라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이 세상을 사는 데에 있어 그만큼 장르가 다양하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으며 전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환학생으로 1년 살았던 것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의 함축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지에 나와 지내면서 제 모습은 때로는 남자의 모습, 때로는 학생의 모습, 때로는 관광객의 모습, 때로는 한 사람의 친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것은 ‘준비된 성인의

결과보고서

모습'이었습니다. 주어진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사는건지, 내 한 방울의 땀이 즉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바뀌고 또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평소 한국에서 용돈 타서 쓸 때의 모습과 여기서의 모습.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책임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렇게 세운 공든탑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교환학생 1 년은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자라나는 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인데, 결코 이 교환학생이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